



협 회 소 식

2023년(1)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INC.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한국교회화요평화기도회 실행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307호

TEL:(02)3676-2007 FAX:(02)3672-1907

www.korinf.com

한반도 평화통일의 랜드마크 “애기봉 전망대”

제1차 한국교회 화요평화기도회

The 1st Korean Church Tuesday Peace Prayer Meeting

- 칼을 쳐서 쟁기로 [사2:4] -



참석자 기념촬영

(사)우리민족교류협회(이하 민교협 / 총재 황우여 장로, 이사장 송기학 장로)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2023년 6.25 한국전쟁 정전70주년 특별기획사업 일환으로 “한국교회 화요평화기도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1982년 9월, 독일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교회에서 시작되어 독일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던 “월요평화기도회”를 벤치마킹 하여 출범한 것으로, 그 첫 기도회가 2023년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1월 첫째 주 화요일인 3일 오후 2시에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주관 하에 교계를 비롯한 국내외 각계 주요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하의 매서운 추위도 개의치 않고 뜨거운 열기와 감격속에서 “제1차 한국교회 화요평화기도회”를 진행했다.

세기총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지구촌선교회 위십선교단의 난타공연과 워십으로 문을 열었으며, 민교협 여성총재 이재희 목사(세기총 상임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느헤미야 1장 1~11절)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신화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느헤미야는 한 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며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통곡하고 울며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했는가? 한국교회가 통곡하며 울며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 자문을 할 때”라며, “최근 남북 관계가 강대 강으로 대치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다”라며 “독일의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교회에서 시작된 월요평화기도회가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 모임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작점이 되어지고,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기도모임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메시지 선포

이어 박신영 목사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 김태성 목사가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교회를 위해’, 성두현 목사가 ‘750만 재외동포와 3만 한인선교사를 위해’, 김진우 장로가 ‘국가와 민족, 경제 안정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를 했다.

또 세기총 제9대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와 전, 농림부장관으로 민교협 조직위원장인 김영진 장로의 격려사가 있는 후, 참석자 모두가 기립하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한 뒤 세기총 제3대 대표회장 김요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신년하례식은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와 민교협 이사장 송기학 장로가 대표자 새해 인사를 했고 참석자 모두가 상호간에 새해 인사를 나누며 향후 화요평화기도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민교협 이사장 송기학 장로 인사말을 통해 “오늘 예배는 성 니콜라이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월요평화기도회 처럼, 우리도 이곳 애기봉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했던 5년 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오늘의 평화기도회는 체코를 비롯한 동구권 3개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 7개국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해 왔다”고 말한 뒤 “이 곳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했다.

또한 첫 기도회에 드러진 헌금과 신화석 목사, 소강석 목사, 이재희 목사 등이 준비한 금일봉을 더하여 김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포성폭력상담소(소장 배순선)’에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노고를 격려하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고, 계속하여 우리민족교류협회가 범국민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운동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식’을 갖고 세기총 3대 대표회장 김요섭 목사, 4대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6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9대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등에게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했다.

한반도 평화메달은 지난 2013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사업 차원에서, 한반도 분단의 현상이자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참전용사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6.25 당시 탄피 등을 녹인 특수합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수여되고 있다.



통성기도



우리민족교류협회 조직위원장 김영진 장로(좌측)와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우측)가 김포성폭력상담소 배순선 소장(중앙)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구촌선교회 웨십단이 오프닝 세리머니

[한반도평화메달 수상자]



목사 김 요 섭
세기총
제3대 대표회장



목사 고 시 영
세기총
제4대 대표회장



목사 정 서 영
세기총
제6대 대표회장



목사 심 평 중
세기총
제9대 대표회장



오늘 수상자들에게 수여해 드린 한반도평화메달은, 6.25 한국전쟁의 상징이자 한반도 분단의 현장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뉘이 깃들여 있는 전쟁 당시에 사용되었던 탄피 등을 녹여 제작하였다. 메달의 목걸이는 한국전쟁 당시 남북양측 참전국과 전후 대한민국 복구사업을 지원했던 국가들의 국기를 이미지화 하여 전쟁당사자들간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함과 동시에 전후 지원국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였다.